

# 정읍시, 시민 중심 행정 빛났다

### 민원·지적 행정, 산림 관리, 복지 등 최우수 기관·우수 지자체 선정

정읍시가 2024년 한 해 동안 민원·지적 행정, 산림 관리, 복지,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시정 운영이 빛났다.

정읍시는 올 한해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산림 관리와 환경 보호 분야의 최우수 기관 선정, 장애인복지 우수 지자체 선정 등 성과를 거뒀다.

민원·지적 행정 분야에서는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과 함께 국가공간정보 발전 유공 표창을 수상하며 디지털 지적 전환과 맞춤형 민원 환경 조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 공모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비 14억 2500만원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인 도시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산림 관리 분야에서도 돋보이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전북자치도의 임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용출수 발생 구간에 담수시설을 설치하고 습지 내 토양을 치환하며 나온 점토질 토

양을 사면에 풀씨와 혼합시공함으로써 접착력과 발아력을 높여 훼손된 비탈면을 친환경적으로 복구한 것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산림청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 분야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육성 노력과 산불 방지 성과를 인정받았다. 전북자치도 주관 숲가꾸기사업 평가에서는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887ha에 달하는 산림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장애인을 위한 교통비 지원, 전동보장구 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환경과 안전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순환골재 재활용 정책을 통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자원 순환과 예산 절감을 동시에 달성했다.

전북자치도가 실시한 미세먼지 저감 시군 종합평가에서는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기관표창과 재정 개선사업 시군 평가에서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특별재정교부금을 확보했다.

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며 첨단 장비를 활용한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를 인정받았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촌진흥청 주관 농업과학기술정보시스템(ASTIS)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과학적 데이터 활용을 선도했다.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과 병해충 문제 해결 사례는 농업 혁신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 성과들은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행정과 지속 가능한 혁신을 통해 정읍시를 전국 최고의 선도 지자체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남원시-전북대, 모빌리티 신산업 발굴 협력

### 인재 양성 교육 등 협약...다음달 고교생 10명 美 대학·기업 탐방 등

남원시가 미래 모빌리티 분야 신산업의 국내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전북대와 손을 잡았다.

17일 남원시청에서는 최경식 시장과 전북대산학협력단 박삼복 부단장, 전북대 RIS미래수송기기사업단 이일재 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모빌리티 분야 신산업 발굴과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협약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 신규 사업 발굴과 인재 양성 교육을 위한 협업 등 상호 협력 관계를 통해 지역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와 전북대 산학협력단 및 미래수송기기사업단은 ▲미래 수송기기 분야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상호 협력 ▲미래 수송기기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등 협업 ▲기타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사업 등에 함께하기로 했다.

첫 번째 행보로 내년 1월 남원지역 고등학생 10여명을 선발, 미국 산호세주립대학교 방문수업 및 실리콘밸리 기업 탐방을 하고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전문가 특강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도 개최할 예



지난 17일 남원시청에서 열린 남원시와 전북대 산학협력단 및 RIS미래수송기기사업단의 '미래 모빌리티 분야 신산업 발굴과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 식에서 최경식(가운데) 남원시장과 산학협력단 박삼복(왼쪽) 부단장, RIS미래수송기기사업단 이일재(오른쪽) 단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남원시 제공>

정이다.

한편 전북대RIS미래수송기기 사업단은 정부의 지역혁신사업의 하나로 설립됐으며 미래 수송기기 산업에서 신기술과 신산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단은 지역과 연계한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정읍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1% 감축"

### 탄소중립 기본계획 시민공청회

정읍시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읍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읍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2018년 대비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1% 감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이번 발표된 기본계획(안)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용역을 맡아 수립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방안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전환 등 지자체에 관리권이 있는 주요 부문에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1% 감축, 연간 726톤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 추진 과제와 재정 계획이 포함된 이번 기본계획은 공청회에서 수렴한 시민 의견을 반영해 더욱 보완될 예정이다. 이후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심



이와 의결을 거쳐 내년 3월 환경부에 제출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완성도 높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며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남원시의회,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요청

### 내년 예산 9967억 의결... "설 명절 전 원포인트 추경 가능"

남원시의회는 19일 4차 본회의를 끝으로 32일간 진행된 제269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 ▲일반 안건 심사 등이 진행됐다.

이날 4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일반 안건과 기금 운용계획안 등 23건을 의결했다. 또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본 예산안의 경우 사업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 약 170억원이 삭감된 9967억원으로 확정됐다.

김영태 의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물가, 내란 사태까지 더해져 소비심리는 위축되고 민생 경제는 악화됐다"면서 "얼어붙은 지역 경기와 민생 회복을 위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어 "설 명절 전에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의회에서는 원 포인트 추경을 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고창군,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10명 선정

### '국민신문고'·'민원처리 마일리지' 분야 송은옥·허아람 주무관 등

고창군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민원서비스 향상에 힘쓴 '우수공무원' 10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공무원은 '국민신문고 분야' 5명, '민원처리 마일리지 분야' 5명이다.

'국민신문고 분야'는 민원처리 건수, 담당자의 민원요지 파악, 답변의 성실성 등을 평가했다. 송은옥

주무관(도시디자인과), 허아람 주무관(환경위생과), 장명준 주무관(도시디자인과), 박진형 주무관(건설과), 표영인 주무관(건설과)이 선발됐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분야'는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법정민원에 대해서 처리기간 단축 일수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누적 점수가 높은 공무원을 선발

했다. 이지만 주무관(건설과), 황찬희 주무관(인재양성과), 김강석 주무관(종합민원과), 박정후 주무관(사회복지과), 김주희 주무관(신활력경제정책과)이 선정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준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친절한 민원 응대와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고창군, 김치산업 미래 성장동력 육성 모색

### 고창식품산업연구원 세미나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지난 17일 고창군 김치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치산업 중장기 계획과 고창 김치산업의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창군 식품 관련 기업 및 김치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세미나는 고창군 김치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고창 김치산업의 육성 방안,

고창의 절임배추 공급과 배추의 저장기술 연구에 대한 특별강연으로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고창군 김치산업이 세계적 음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식산업 활성화와 고창군의 다양한 특화자원을 이용한 차별화를 통해 포화상태인 김치의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의 김치산업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의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